

등록번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291
등록일자	2020. 1.22
결재일자	2020. 1.22
공개구분	공개

담당자	의정담당	의회사무과장	의 장
박창원	정영호	이영애	최진용
협조자			

## 2019년 국외 선진지 비교시찰 결과 보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Jung-gu Council

# 2019년 국외 선진지 비교시찰 개요

1. 여 행 국 : 네덜란드, 독일

2. 출장목적 :

- 도시재생 및 항만재개발 우수사례를 견학하여 원도심과 내항 재개발 및 영종국제 도시 개발 방향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통하여 바람직한 복지인프라 조성 방향을 연구
- 문화·관광 우수시설을 조사하여 원도심 및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방안 도모

3. 출장기간 : 2019. 12. 17.(화) ~ 12. 23.(월) [5박 7일]

4. 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연 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1	중구의회	의장	최 찬 용
2		부의장	정 동 준
3		운영총무위원장	박 상 길
4		주민복지건설위원장	강 후 공
5		의원	이 종 호
6		의원	이 성 태
7		의원	유 형 숙
1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승 선
2		의정담당	박 대 승
3		의사담당	서 연 숙
4		주무관	김 민 선
5		주무관	허 혜 민
6		주무관	박 창 원

# 목 차

I.	<b>방문개요</b>	.....	1
II.	<b>방문일정</b>	.....	2
III.	<b>방문지 개황</b>	.....	3
IV.	<b>기관 공식 방문 및 시찰 내용</b>	.....	5
	○ 암스테르담 마리나	.....	5
	○ 로테르담 KCAP(도시설계 건축디자인 사무소)	.....	8
	○ 프랑크푸르트 노인요양원	.....	11
V.	<b>분야별 우수사례</b>	.....	14
VI.	<b>방문후기</b>	.....	20
	○ 최찬용 의장	.....	20
	○ 정동준 부의장	.....	22
	○ 박상길 의원	.....	23
	○ 강후공 의원	.....	24
	○ 이종호 의원	.....	26
	○ 이성태 의원	.....	29
	○ 유형숙 의원	.....	30
VII.	<b>시찰결과</b>	.....	34



# 2019년 국외 선진지 비교시찰 결과 보고

- 도시재생 및 항만재개발 우수사례를 견학함으로써 내항 재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 사회복지시설 견학을 통해 바람직한 복지인프라 조성 방향을 연구
- 문화·관광 우수시설을 조사하여 원도심 및 영종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벤치마킹 방안 도모

## I 방문개요

- 방문기간 : 2019. 12. 17.(화) ~ 12. 23.(월) 【5박 7일】
- 방문국가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독일(프랑크푸르트, 하이델베르크, 로텐부르크, 뷔르츠부르크)
- 방문인원 : 13명

연 번	소 속	직 위(급)	성 명
1	중구의회	의장	최 찬 용
2		부의장	정 동 준
3		운영총무위원장	박 상 길
4		도시정책위원장	강 후 공
5		의원	이 종 호
6		의원	이 성 태
7		의원	유 형 숙
1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 승 선
2		의정담당	박 대 승
3		의사담당	서 연 숙
4		주무관	김 민 선
5		주무관	허 혜 민
6		주무관	박 창 원

○ 방문목적

- 우수 도시재생 및 항만재개발 시설 벤치마킹 및 바람직한 발전 방향수립
- 복지시설 개선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논의
- 원도심의 상권 활성화와 영종국제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문화·관광 및 교통정책 우수사례 견학

II

방문 일정

일 자	연수지역	일 정
제1일 12/17(화)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출발(KE 925) → 암스테르담 국제공항 도착</li> </ul>
제2일 12/18(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리나 시설(Amsterdam marina)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레저시설 개발방향 참고 시설 답사 및 자료 수집</li> </ul> </li> <li>• 이스턴 도크랜드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만 재개발 및 도시재생 사례 견학</li> </ul> </li> </ul>
제3일 12/19(목)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CAP(도시설계 건축디자인 사무소)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덜란드 및 유럽 항만 재생사례 청취 및 인천 내항 재개발 컨셉디자인 설명, 현지 도시재생 사례 견학</li> </ul> </li> </ul>
제4일 12/20(금)	독 일 (프랑크푸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요양원(Seniorenwohn-Pflegeheim Am Kastell)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진 노인복지 시설 견학 및 관련내용 청취</li> </ul> </li> </ul>
제5일 12/21(토)	독 일 (하이델베르크, 로텐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맨틱가도 현장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마관광자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시설 현장 답사</li> </ul> </li> <li>• 로텐부르크 도시 시설물 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항장거리 등 역사·문화자원 활성화 참고사례 견학</li> </ul> </li> </ul>
제6일 12/22(일)	독 일 (뷔르츠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가지 트램 및 관광열차 운행현장 견학</li> <li>• 남부 독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레지덴츠 견학</li> <li>•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출발(KE 906)</li> </ul>
제7일 12/23(월)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 공항 도착</li> </ul>



## 1. 네덜란드



○ 면 적 : 41,526km<sup>2</sup>(한반도의 약 1/5)

○ 인 구 : 1,709만 7,130명(2019 통계청 기준)

○ 특 징

- 유럽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입헌군주국.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행정부는 헤이그에 소재, 행정구역은 12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음
- 네덜란드 각 자치구에는 자치단체 장과 자치의회가 있고, 자치의회는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자치의원으로 구성
- 자치의원수의 수는 인구에 따라 7명~45명을 선출, 그 중 인구 수에 따라 2명~9명의 상급의원(Alderman)을 자치의원 중에서 선출
- 유럽 최대 규모의 항만인 로테르담항이 위치해있으며, 운하가 발달하여 보트를 이용한 레저, 마리나산업이 발달해있음

## 2. 독 일



○ 면 적 : 35만 7022km<sup>2</sup>(한반도의 약 1.6배)

○ 인 구 : 8,351만 7,045명(2019 통계청 기준)

○ 특 징

- 유럽의 중앙부에 위치한 독일연방공화국, 1990년 10월 3일 통일되었으며 EU(유럽연합)의 창설국이자 EU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 헌법조항 44%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일 정도로 지방분권이 강한 국가,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주의회를 가지고 있음
- 사회보장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국가로 5대 사회보험(연금, 의료, 실업, 산재, 수발)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높은 수준의 공적연금제도 등으로 인해 노인복지가 굉장히 좋은 편



## IV

## 기관 공식 방문 및 시찰 내용

### 1. 암스테르담 마리나

- 방문일시 : 2019. 12. 18.(수) 14:00~17:00
- 방문기관 : 암스테르담 마리나(Amsterdam marina)
- 참 석 : 15명
  - 마리나 관리자 2(Niels Anema, Thijs Redeker)
  - 최찬용 의장, 정동준 부의장, 박상길 의원, 강후공 의원, 이종호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의회사무과장, 의정담당, 의사담당, 직원(3)
- 주요내용
  - 마리나 운영 및 관리 현황 청취
  - 시설 견학 및 제반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
- 기관개요
  - 대형 마리나 기업인 Jachthavengroep에 속해있는 자회사이며, 같은 기업 소속으로 네덜란드에 위치해있는 Rotterdam marina, Marina Stellendam, Regatta Center Medemblik, Marina Stellendam 등과 연계되어있음
  - 340대의 보트가 정박할 수 있으며, 17m-55m의 요트를 정박할 수 있음
  - 암스테르담 마리나에 정박을 신청하면, 같은 그룹 내 다른 마리나에서도 정박이 가능한 시스템
  - 임대료는 일일 기준으로 연간 임대료는 1m당 2.5유로(약 3,250원)이며, 연간 임대료는 7m 1,400유로~30m 9,360유로까지 다양
  - 누구든 임대료를 지불하면 위생체크 및 수도, 전기, 와이파이 등이 모두 사용 가능한 편의시설



○ 주요 질의응답

Q1 : 네덜란드 내에 위치한 마리나 시설들은 총 몇 개가 있는지?

A : 크고 작은 것을 합치면 500개 가량이 있다.

Q2 : 암스테르담에 이처럼 많은 마리나가 위치해있는 이유는?

A : 지형적인 이유가 크다. 네덜란드 전체가 거미줄처럼 수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운하들의 길이를 합치면 7천km가 넘을 정도이다. 그 중 수백 톤 이상 대형 선박이 지날 수 있는 운하도 약 3천km에 달하며, 그만큼 주민들이 수로와 보트에 밀접한 삶을 살고 있다. 보트가 많은 만큼 전국 각 지역에 마리나가 위치해있다.

Q3 : 마리나 산업이 네덜란드의 관광 수입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A : 정확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알기 힘들지만, 전체 수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마리나의 자체 이용료 외에도, 이용객들의 부가적인 소비 비용까지 생각하면 그 크기가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까이는 네덜란드 에이설 호, 로테르담부터 멀리는 북해 각 지역에서 다양한 선박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Q4 : 많은 국민들이 보트를 가지고 있으며 수상가옥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용에 제한은 없는지?

A : 보트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법규 상 20km이상의 속력을 내려면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우리 마리나 시설 내의 해상에서 연습하는 경우도 있다.

Q5 : 국가나 암스테르담 시에서 마리나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는지?

A : 우리 기업은 운영에 있어 특별히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곳 부지 자체가 사유지이며, 이를 우리가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 정박시설과 여기 회사건물 외에 마리나 주변 시설들은 암스테르담 항만청에서 소유하고 있다.

## ○ 관련사진



<마리나 운영현황 청취 및 질의>



<현장 견학>

## ○ 시사점

- 네덜란드는 국가 전체에 사방으로 뻗은 운하가 있기 때문에 보트산업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중구에서 그대로 답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음. 다만 암스테르담 마리나의 이용객들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멀리 외국에서도 온다는 점을 참고할만 함. 내항 재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나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국내 타지역, 멀리는 외국의 대형 선박까지 마리나로 끌어올 수 있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암스테르담 마리나처럼 타 지역에 위치한 마리나들과 연계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야 할 것.
- 암스테르담 마리나의 운영 주체는 사기업이지만 부지의 소유주는 암스테르담 시이고 인근 항만시설들은 암스테르담 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음. 중구의 해양레저산업의 개발도 정부와 민간이 소통하며 협력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마리나 인근 시설물 중 여럿은 과거 폐쇄된 항만에서 사용되던 것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 중이었는데, 도시 미관상으로도 훌륭하고 민간 사무실로 임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 중. 우리도 내항 재개발 등에서 남은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할 것이 아니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함.



## 2. 로테르담 KCAP(도시설계 건축디자인 사무소)

○ 방문일시 : 2019. 12. 19.(목) 10:00~12:00

○ 방문기관 : KCAP Architects & Planners

○ 참 석 : 15명

- KCAP 공동대표 1(Jeroen Dirckx), 프로젝트 디렉터 디자인 소장 1(박혜리)
- 최찬용 의장, 정동준 부의장, 박상길 의원, 강후공 의원, 이종호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의회사무과장, 의정담당, 의사담당, 직원(3)

○ 주요내용

- KCAP에서 진행 중인 각국의 도시설계 디자인 관련 설명
- KCAP의 '내항 도시재생 사업 아이디어' 당선작 관련 설명

○ 기관개요

- 인천시와 내항 1·8부두 도시재생을 위한 실무급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로서, 2018년 말 인하대 산학협력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천시와 해양수산부가 국제공모한 '인천 내항 도시재생 사업' 아이디어에 선정된 도시설계 디자인 그룹.
- 1989년 설립하여 현재 8명의 공동대표와 약 110명의 직원이 소속되어 있음. 로테르담에 본사를 두고 취리히, 상하이에도 지부를 둔 국제적 기업.
- 네덜란드 뿐만 아니라 독일,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한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주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세운4구역 국제지명현상설계공모에서도 '서울 세운그라운드스'라는 이름으로 최종 당선된 바 있음.
-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개발, 지역의 조경과 어우러지는 건축 디자인을 추구하는 기업. 건축, 도시, 조경 분야를 통합적으로 수행.

○ 주요 설명내용

- 우리 회사는 이스턴 도크랜드를 비롯한 네덜란드 각 지역 도시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항구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거주기능을 부여하고 주민을 끌어들이는 방식을 추구했음.



- 수변이 많은 네덜란드 특성 상, 보행자와 수변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하였음.
  - 이스턴 도크랜드의 경우 기존 창고들을 유지시키고 그 위에 건물을 이어서 올려쌓는 식으로 설계를 하였음. 신축건물과 기존건물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디자인.
  - 건물 저층부는 오피스 및 상업시설을 입주시키고 보행 친화적인 설계를 통해 공공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 상층부는 주거와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
  - 대중교통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주차공간을 줄이고 각 필지별로 매각 및 개발자를 선정하여 다양성을 살림.
  - 도시 디자인에 있어 장기적으로 시민과의 소통과 논의를 통해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였음. 정치적으로 도시 개발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중요.
  - 고도제한이 있는 경우, 초기 도시계획단계부터 몇 개의 랜드마크 시설을 지정하고 고도제한의 예외대상으로 제외함.
- 
- 우리 회사가 참여했던 내항 도시재생 사업 관련하여 설명하면, 내항도 '내항 둘레길'과 각 지역을 관통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수변과의 접근성 살리기가 매우 중요한 과제였음. 하지만 군사시설이 위치하여 보안 문제로 인해 접근성이 매우 낮았음.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보안문제 해결이 시급함.
  - 내항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다양한 만큼, 마리나 산업을 비롯한 자연친화적 레저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등으로 이용 방향을 다각화하고자 했음.
  - 내항 재개발은 시민참여율이 저조하고 기간이 짧다는 것이 문제. 특정 개발업자를 두지 않고 장기간동안 시민이 직접 도시 디자인을 주도했던 '로테르담 재개발' 사례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임.

## ○ 관련사진



<KCAP 현황 프리젠테이션 청취>



<KCAP 내부 사진>

## ○ 시사점

- 내항은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만큼, 각 사업이 따로 놀지 않고 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 따라서 로테르담의 재개발과 같이 우리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하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난 후에는 공공용 핵심사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변의 조인과 여건에 맞춰 변화하는 플랜 수립이 필요.
- 시민의 참여가 도시 디자인의 중심이 되었던 로테르담과 독일 하펜시티 재개발 사례처럼, 우리 역시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높일 필요가 있음. 공청회 및 설명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참여의 창구가 개발되어야 함.
- 내항은 주민과 수변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이 큰 문제. 내항을 진정으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가 시급함.
- 재개발 시 기존의 시설을 모두 철거하거나 단순 보존에만 힘쓰기보다, 상징성을 갖춘 건물들은 남겨두고 이를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구의 역사와 가치를 살리고 실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개발 방향 수립 시부터 핵심시설 랜드마크 시설을 몇 군데를 지정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 3. 프랑크푸르트 노인요양원

○ 방문일시 : 2019. 12. 20.(금) 15:00~17:00

○ 방문기관 : Seniorenwohn-Pflegeheim "Am Kastell"

○ 참 석 : 15명

- 요양원 사회복지담당자 1(Aline Pittner)

- 최찬용 의장, 정동준 부의장, 박상길 의원, 강후공 의원, 이종호 의원, 이성태 의원, 유형숙 의원, 의회사무과장, 의정담당, 의사담당, 직원(3)

○ 주요내용

- 요양원 개요 및 운영현황 설명

- 독일 노인요양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 기관개요

- 독일 Arche Noris 사 산하의 9개 노인복지시설 중 한 곳으로, 2009년 직원 90명으로 시작된 시설. 2017년 확장되어 현재 약 17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민간 유한책임회사.

- 169명의 노인이 법규에 따라 각자 1인 1실을 배정받고 이용하고 있으며, 6개의 메인 홀, 17개의 단기치료실과 15개의 장기치료실이 소재해있음. 각 입소자 당 전담직원이 배치되어 24시간 내내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며 가족과 친척들이 간호 과정에 참여.

- 1인당 이용요금은 약 1,980유로(약 267만원)에 달하나, 시에서 5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해주고 있어 금전적인 문제로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음. 따라서 요양원 소재 가까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 중.

- 추가 연금보험 및 추가 건강보험, 건강재무설계 자문 및 종합 피트니스 지원 등 직원 복리후생에도 많은 투자.

○ 주요 질의응답



- Q1 : 현재 이 지역에 노인요양원이 담당하고 있는 인구는 몇 명 정도인지?
- A : Groß-Gerau 지구 인구가 약 3만명인데, 현재 2개의 요양원이 위치해있다. 약 1만 5천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다.
- Q1 : 노인요양원 입소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 A : 원하는 사람은 전원 가능하고 현재 53~102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으며 중증 환자의 경우는 입소 불가하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국가보험에 소속된 평가사들이 전원 파악하고 있다.
- Q2 : 민간회사인데 영리 추구 부분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 A : 영리에 있어서는 비록 민간회사이지만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의 한계치가 정해져있다. 다만 최소 수익도 보장되어있어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운영의 커다란 어려움은 없다.
- Q3 : 어떠한 프로그램들은 주로 운영하고 있는지?
- A : 다양한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대일 산책, 독서, 운동, 노래, 기억력 재훈련, 예배, 콘서트, 학예회 발표 등. 중요한 활동으로는 정기적으로 토론을 개최하여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노인들의 치매 예방과 소속감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 Q4 :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는 모두 동일한지?
- A : 예전에는 지불하는 비용 등에 차별이 있던 것이 요양보험의 확립으로 인해 이제 모든 입소자들은 차별없는 복지 혜택을 누린다. 각자 지불해야 할 비용도 시에서 모든 이들의 재산 일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 관련 불공정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별로 없다.
- Q5 : 입소자에 대한 폭력이나 신체구속 등 학대 여부는 없는지?
- A : 우리나라는 인권에 대한 인식 자체가 강하고, 또한 이러한 신체적인 폭력 부분에 있어서는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지 않다.

Q6 : 요양원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A : 프랑크푸르트 시에서 재정, 위생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모든 수치를 점수화하고 이를 전부 공개하고 있어서 여기에 부합하는 점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관련사진



<요양원 운영현황 청취 및 질의>



<요양원 시설 견학>

### ○ 시사점

- 독일은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령화 국가로, 우리 역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례이다. 우선 어떠한 노인이든 비용에 관계없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할만하다. 노인복지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에게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 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문제인데, 시에서 각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비용 부담금을 설정한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또한 불필요하게 입소하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전국민의 건강상태를 국가보험에서 파악하고,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요양원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참고해볼만한 사항이다.
- 요양원의 노인 학대가 자주 문제로 거듭되는만큼, 인권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학대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규정한다는 독일의 사례는 배울만하다. 학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지만, 이를 실제로 이행하게끔 만드는 것은 역시 철저한 교육과 제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독일처럼 1인1실 시스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노인의 인권 향상과 개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임을 이해하고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 중 하나로 참고할만하다.

## V

## 분야별 우수사례

### 1. 항만 및 도시재생 분야



<네덜란드 국민들의 자전거 이용>



<표지판 좌측 : 자전거도로 / 우측 : 차량도로>

- 네덜란드 국민들은 대부분이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다. 수km 이상의 먼 거리도 자전거로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의 독려가 유익하다.
- 우측 사진을 보면 표지판 좌측의 넓은 도로가 자전거도로, 우측의 좁은 도로가 자동차도로이다. 자전거 이용이 보편화 되어있는 네덜란드인만큼 차량보다 자전거의 통행을 더 중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만하다.





<암스테르담 시가지 전경>



<로테르담 소재 빌딩>

- 암스테르담의 건물들은 신식 건물보다 수십~수백년 된 건물들을 보수, 개량하여 사용한다. 규정된 도시 디자인에 맞지 않는 건물은 건축이 제한되며, 덕분에 오래된 건물로 가득한 도시는 그 자체로 암스테르담시의 박물관이자 관광자원 역할을 한다. 중구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
- 반면 로테르담시의 건물들은 전반적으로 현대화 되어있는데, 현대식 건물들도 해당 지역을 상징하거나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로테르담시 내에 많은 도시디자이너 사무실이 위치한 것도 이러한 부분에 영향을 끼쳤으며, 대부분 건물이 주거 기능을 겸하고 있어 상업, 문화기능이 주거기능과 공존하는 형태다. 도시 재개발로 주민들을 떠나보내기보다, 오히려 더 끌어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한 네덜란드 정부의 생각이 담겨있다. 우리 중구 재개발을 위한 참고 사례가 될 것이다.



<로테르담 시내의 마켓홀>

- 로테르담 시내에 위치한 거대한 마켓홀. 거대한 원통형 구조의 건물에 1층부터 지하까지는 상업시설로 뿔뿔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상층부에는 거주민들을 위한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도시 재생에 있어 주민 거주의 중요성에 대한 로테르담시의 생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로테르담 육교>



<육교 상판에 적힌 클라우드펀딩 참가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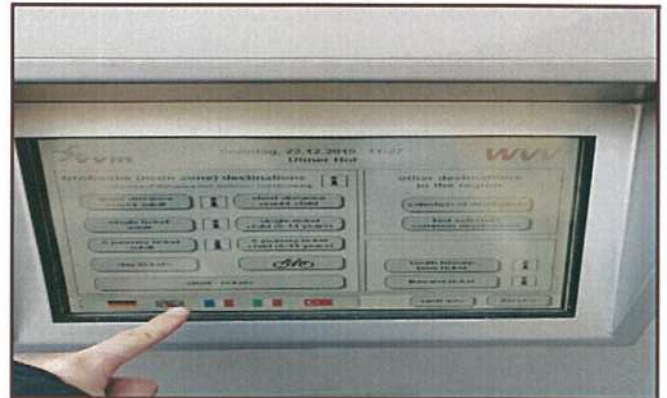
- 도시재생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건축한 대표적인 사례. 육교 보행로 양 옆 상판에 가득 적힌 이름들은 클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다. 쇠퇴해가는 도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도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자금을 끌어모은 대표적인 주민 참여의 사례다. 각 건물들을 잇고 도시 각 지역을 관통하는 이 육교는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를 대표하는 구조물로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을 위한 훌륭한 사례이며 중구에도 충분히 도입할만한 가치가 있다.

## 2. 사회복지 및 문화·관광시설 분야





<뵘즈부르크 시내, 좌 : 트램 / 우 : 수송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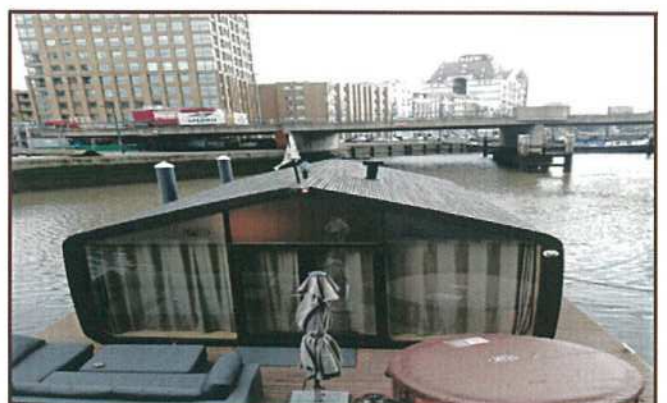


<트램 탑승권 무인발권기>

- 유럽 각지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트램. 잘 갖춰진 트램은 도시디자인 측면에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하고 차량의 이용을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시내 곳곳을 이동하는 트램은 우리 중구의 다양한 관광자원(개항장 거리, 차이나타운, 씨사이드 파크 등)을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는 수단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배터리 제작 기술은 이미 트램 제작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바,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면 도시미관 개선에도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 무인기를 이용해 이용구간에 따라 트램 이용권을 구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안내판과 함께 다양한 언어로 이용 가능하며, 2유로(약 2,700원) 가량의 비용으로 환승까지 가능하다.



<네덜란드 수상 꽃집>



<네덜란드 수상 가옥>

- 암스테르담 도처에서 볼 수 있는 수상가옥들. 웬만한 가옥들은 지상 가옥



못지않은 가격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가옥들은 암스테르담의 높은 인구밀도에 따라 생겨났지만 현재 암스테르담의 명물로 자리잡아있다. 그 대로 중구에 접목시키기는 쉽지 않겠지만 주거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가 곧 관광상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로텐부르크 범죄박물관>



<하이델베르그 구조물>

- 독일 로텐부르크 시내에 위치한 범죄박물관. 기피하고 감추기 쉬운 과거도 하나의 역사이자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사례. 중구에 있었던 개항기와 강점기 시절의 흔적들은 감추고 싶은 어두운 역사일수도 있지만,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역사의 의미를 정확히 알리고 관점을 달리해 활용한다면 이러한 역사들도 우리의 문화·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하이델베르그는 중세시대 특유의 분위기를 도시 전체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흔한 시설물들도 주변 분위기와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배어있다. 사진의 구조물과 같이 표면을 단순한 철판보다 자갈과 이끼로 덮어 주변 환경에 조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주차봉과 같은 구조물들도 목재로 주변을 감싸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살렸다. 역사 깊은 중구 시내에도 충분히 접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로텐부르크 광장에 열린 크리스마스 마켓>

- 크리스마스 기간은 독일인을 비롯한 많은 유럽인들에겐 우리의 설명절과 같이 매우 중요한 시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준비된 수많은 크리스마스 마켓들에서 쇼핑하고 즐긴다. 수많은 마켓들은 각자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분위기와 어울리는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통해 매력을 한층 강화시킨다. 우리 중구에도 신포 청년몰과 운서동 외국인 특화거리, 여러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이들 역시 중심 테마를 토대로 각 상점들의 디자인과 판매 물품을 선정하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4. 기타 분야



주차금지봉 겸 분리수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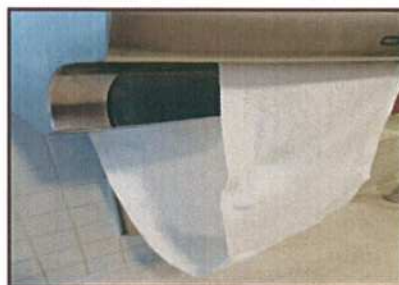
기차역사 지하를 활용한 사무실



식당 입구의 장애인전용 리프트



기존 항만시설 구조물



화장실 타올



공공시설 만족도 평가버튼



- 로테르담 많은 건물들 입구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리프트. 한국에서도 이제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식당까지 오르내리는 단 몇 칸의 계단도 장애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좋은 사례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즉각적으로,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튼을 설치하여 복지시설 개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화장실 티슈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 롤형 타월을 이용한 모습. 간단하지만 환경 보존을 위해 힘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주차금지봉을 분리수거대로 활용하고, 기차역사 하단부에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사무실을 짓고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한 모습. 부족한 부지를 적극 활용하고 효율성을 높인 사례다. 또한 불필요해 보이는 기존 항만 구조물들도 지역의 역사를 담은 작품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도시재생을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도시재생 방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적극 활용하고 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중점이 있었다.

## VI

## 방문후기

### 【최찬용 의장】

- 이번 비교시찰에서 중점으로 살펴본 것은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의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방안과 도시재생 방안이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복지 시스템 수립 방안을 알아보고자 했다.

- 우선 독일의 트램과 네덜란드의 자전거 대중화는 영종국제도시에 접목시킬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트램은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1대가 약 40대의 차량을 대체할만큼의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철이나 기차보다 훨씬 자유롭게 도시 각지를 돌아다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기로 운영되면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영종도 하늘바다길 조성과 관련해서도 네덜란드와 같이 자전거도로의 비율을 대폭 넓힌다면,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해안 자전거 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네덜란드 방문 중 KCAP이 제시한 인천 내항 및 원도심 재개발 방안도 우리 중구의 상황에 충분히 접목할만하다. 그들이 제시한 주요 쟁점은 주민과의 소통으로, 현재 내항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소통 부족을 제시하였다. 10년~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주민들과 대화하며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현재의 개발방식은 소통부족으로 인해 주민들과 잦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 의견은 충분히 고려할만하다. 아울러 그들은 무조건적인 개발 일변도보다 기존 건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며 도시의 역사와 미관에 맞는 개발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역시 유서 깊은 중구의 거리와 도시를 생각하면 납득할만하다.
- 영종국제도시의 기반 시설들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문제점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구의 원도심 역시 내항 재개발이 진행되는 이 시기가 향후 백년대계를 가를 중대한 시기이다.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우수한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진행된다면 충분히 네덜란드나 독일의 도시들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수십, 멀게는 수백 년 뒤를 생각하는 친환경 지속가능한 개발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아울러 독일 노인요양원이 보편적 복지를 위해 모든 노인들에게 가진 재산과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세계적인 흐름이고 주민의 행복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 【정동준 부의장】

- KCAP 방문시 들었던 인천항 개발 비교분석을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천 내항의 개발을 위해 적용하기까지 대체로 먼 길처럼 느껴진다. 우선 그들의 철저한 계획 도시형성을 우리 인천이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과정은 아래와 같으면 좋을 것 같다.
- 우선 인천시와 항만공사, 개발사의 철저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할분담은 1) 인천시는 큰 틀에서의 계획과 별도의 사업팀(T·F)을 만들어야 한다. 2) 항만공사는 인천시에서 개발이 시작되는 시점까지 내항 근처의 모든 부지의 땅을 지구단위 계획이나 개발 허가제한을 요구하여 난개발의 소지를 차단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취하지 말고 필지 분할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개발회사는 모든 필지의 용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인천시의 항만개발팀과 논의하여 파트별로 각자의 위치에 맞는 맞춤형 부지로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 독일의 노인요양 치매센터, 특히 그들이 고안한 유한투자회사 치매센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우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였고, 특히 매력적인 것은 거의 모두가 1인 1케어 방식이라는 점이였다. 그리고 경비와 관련하여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되는 시스템을 갖추으로써, 부조리의 모든 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 느껴졌고 선진국임을 느끼게 해주었다.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요트 마리나 회사의 경우에는 그들의 수많은 요트 사용 인구에 놀라웠고, 마리나 항구의 값싼 이용경비가 한국과 비교하여 매우 저렴하게 운영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운영경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요트 인구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 【박상길 의원】

-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폐허가 된 가스 공장을 재생하여 갤러리, 카페, 상가, 아파트, 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역사적 건축물은 그 외형을 최대한 살리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천 개나 되는 운하를 잘 관리하고 있었으며 수상가옥이 눈에 띄게 멋스러웠다.
- 특히 풍차를 국보로 지정하고 풍차학교 졸업 후, 풍차를 대여해서 상점, 식당,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랜 전통과 문화를 아끼고 보존하려는 유럽인들의 정신을 찾아 볼 수 있었다.
- 중세마을이 있는 로텐부르크는 파괴된 곳의 보수는 최대한 줄이고 원형을 보존하려는 흔적들이 보였다. 보수작업을 위해서 오랜 준비기간과 공사기간



을 투자하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보수를 마치는 우리와 사뭇 다른 정서다. 또한 세계 최대의 축제인 크리스마스 축제를 위해 최초로 크리스마스 물건을 파는 곳이기도 했다. 곳은 날씨에도 많은 인파들이 길거리에 나와 있었으며 끓인 와인 빵쇼를 마시며 소박하게 파티를 즐기는 유럽인들을 보며 그들의 문화의 장을 본 듯 했다.

- 문화와 예술은 그 지역에 따라 다르다. 문화와 예술의 가치는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양식이 반영된 것으로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다. 유럽인들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를 그들 스스로 높이며 보존하고 있다.
- 우리 중구에도 수많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역사들이 있다.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고, 관광의 아이템으로 활용하며, 그 가치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 【강후공 의원】

- ‘내항 도시재생 사업 아이디어’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던 네덜란드의 디자인 회사인 KCAP을 방문했던 시간은 우리 중구가 직면한 막연하기만 했던 항만도시 재개발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과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개발’이 아닌 ‘재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그들의 생각에서 선진화된 사회 참여 의식을 알 수 있었다.
- 특히 도시재생으로 아름답게 재탄생한 로테르담을 직접 둘러보며 정부와 시민들의 고민과 노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중

구도 항만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내항이 있다는 점에서 로테르담과 닮은 점이 많은 도시이다. 민·관의 협력으로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내항재개발이 이루어져 로테르담 못지않은 아름답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노인요양원 방문은 선진화된 노인 복지 시스템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우리도 노인요양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요양원의 시설이나 비용, 입소자의 인권, 직원들의 전문적인 능력 문제 등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이다. 모든 복지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성이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하에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모든 입소자가 행복하게 생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 독일의 로텐부르크와 하이델베르크는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중세시대의 모습이 잘 보존된 관광도시라는 점에서 개항기 인천의 모습을 간직한 중구와 비슷한 점이 많은 도시이다. 전쟁으로 소실되거나 세월이 흐르며 무너진 부분을 오랜 시간을 들여 보수하며 유지하는 모습에서 유럽인들의 문화의식을 알 수 있었다.
- 오랜 역사를 가진 네덜란드와 독일의 도시를 돌아보며 구도심화 되고 낙후된 지역을 무조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 그 도시의 특색을 살려 조화롭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등 여가활동의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 【이종호 의원】

- 인천공항 T2에서 12시간 비행을 하여 네덜란드 암스텔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도착 후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 항만재개발 지역인 이스턴 도크랜드로 이동하여 주변지역을 둘러 보았다. 오전에는 암스텔담 보트센터를 공식 방문했다.
- 암스텔담 운하 견학도 인상깊었다. 구도심센타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폐허가 된 가스공장을 공원으로 개발한 현장도 확인 할수 있었다. 구도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을 많이 유입시켜야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암스텔담은 85만의 인구와, 194개국의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고 있다. 가장 혁신적이고 자유로운 도시가 암스텔담이다. 네덜란드는 산이 없다. 쓸모 없는 땅이 없다. 국토의 대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500년, 800년, 1000년 이상의 오래된 건물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했다.
- 네덜란드는 소득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국가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노후보장을 해준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직업의식이 투철하다. 12살 때 직업을 결정한다. 공부에 적성이 맞지 않으면 직업과 관련된 학교를 결정한다. 교육시스템이 선진국이다. 합리적이며 실용적이다. 그래서 강국이라고 생각된다.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이다. 풍차가 있는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을 하려면 풍차와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하고 풍차 전문가가 되어야 가능하다. 네덜란드의 건축물은 특징이 있다. 창문이 매우 크고 아주 많다. 해가 자주뜨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1년이면 약100여일 정도만 햇볕을 볼 수 있다.
- 암스텔담 북쪽의 신도시인 항구도시는 자전거 주차장이 눈에 띈다. 네덜란

드의 주요 교통수단은 자전거이다. 출.퇴근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거리를 꽉 메운다. 네덜란드 총리는 아직 50대 미혼이고 역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유 인지는 몰라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남녀노소 비만자들이 없다. 암스텔담에는 약 1500개의 다리가 있고 수상가옥도 약 2,500여개나 된다. 운하가 발달되어 있어서 밤에는 장관을 연출된다.

- 정치제도는 헌법상 입헌 군주국으로 되어 있으나, 영국처럼 왕실이 존재하나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고 모든 일상적인 정치는 의회를 통해 구성되는 내각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타인에 대한 간섭과 관심이 없고 관료의식이 전혀 없다. 주거와 관련하여 사회주의 시스템이 가미되어있는데 주택소유는 60%가 임대주택이며, 소유주택은 약 30% 정도이다. 네덜란드는 먹고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다. 그러나 유럽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추정된다.
- 또 하나의 특징은 거리에 건물에 간판이 없다. 있어도 매우 작아서 처음 건물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건물인지 알수가 없다. 우리나라와 단연 비교가 된다. 유럽인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행복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 국가, 이웃, 학교에서 배운다. 이튿날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인 로테르담을 방문했다. 인구 50만의 항구도시로 댐을 막아서 도시를 만들었으며 항구가 있어서 물류산업이 발달 했다. 그곳에서 네덜란드 최고의 건축설계회사인 K-CAP을 방문했다. 치수와 항구의 역사를 담아낸 회사 110여명의 직원과 취리히, 상하이에 지사가 있고 22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인도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건축, 도시, 조경이 전문인 회사이며 한국의 세운상가4구역의 설계와 재개발 프로그램 용역도 수주한 회



사였다.

- 네덜란드는 땅을 메워서 만든 나라이다 해수면보다도 6미터 이상 낮은 국가이다. 수세기 동안 간척을 했다. 토목, 수처리가 특화된 나라이다. 강을 조성하여 수로로 연결하여 담스케어를 시초한 나라이다. 운하자체가 경쟁력이고 운하도 전부 무역으로 이용한다. 우리는 K-CAP에서 네덜란드 항구의 역사, 수리, 토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1990년경부터 도시재생을 시작하여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린 도시를 재개발하여 주거,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과정도 보았다. 쇠퇴한 도시가 수변지역과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고품격의 주거와 수변지역으로 변모하는 과정도 경험했다.
- 인천항의 내항 마스터플랜을 설계한 회사가 K-CAP이다. 설명에 의하면 인천내항도 잠재력이 풍부하고 컨텐츠가 다양하다고 한다. 원도심의 주민의 최대 숙원은 인천 내항 재개발이다. 인천항의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물류, 하역 등이 송도외항, 평택항, 북항 등으로 이전되고 있다. 지금이 인천내항을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적기라고 생각한다. 인천내항은 세계최초의 갑문이 있고 역사, 문화가 있고 구도심이 있다. 세계3대 미항은 시드니항을 비롯하여 노틀담 항구처럼 재생이 가능하다.
- 최근 1.8부두 내항재개발의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이 좌초했다. 빠른 시간 내 재개하여야 한다. 2024년 수도권 최초로 국립해양 박물관이 월미도에 개관을 한다. 내항재개발이 더욱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번 해외 비교시찰을 통하여 항구의 역사, 네덜란드 암스텔담 항구와, 유럽최고의 노틀담 항구 재생과 역사를 체험 할수 있었다. 인천내항 또한 재생을 통하여 빠른 시간내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를 희망한다.

## 【이성태 의원】

- 네덜란드와 독일의 방문 중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문화와 역사를 살린 개발 방식이었다. 네덜란드 KCAP 회사가 설명한 도시재생사업들과 거리에서 본 수많은 오래된 건축물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전쟁 이전이나 중세 식으로 잘 복원한 독일의 도시들, 그리고 이를 잘 보존하고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모습까지. 그들은 도시의 분위기와 역사,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에서 도시를 계획하고 건축을 허가했다.
- 원도심만큼 오래된 건축물들은 많지 않더라도, 영종국제도시 역시 깊은 역사를 가진 도시이며 이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인공 건축물들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도 하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 개발을 해나감에 있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하며, 동시에 공항이 입지해있는 특유의 조건을 잘 활용해나간다면 타 지역과 다른 영종국제도시만의 매력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 도시 곳곳을 연결하는 트램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유럽의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국내 많은 도시에서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중구에도 도입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독일 요양원에서 볼 수 있는 1인 1실을 기반으로 한 잘 구축된 사회복지시스템은 참고할만하다. 현재 영종국제도시는 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 복지시스템이 많이 열악한 상태이다. 돈도 돈이지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요양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사업성과 관계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기초 예산을 지원해줘야 한다. 과도한 영리추구는 제한하고 일정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원해주는 독일의 제도는 우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유형숙 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힘든 의사일정과 22일간의 긴 정례회의를 마치고 우리는 다음날 네덜란드로 향했다. 인천 공항을 출발하여 13시간만에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네덜란드 암스텔담 인구는 85만, 짐을 풀고 다음날 기관 방문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암스테르담 마리나 시설을 가게 되었고, 이 시설이 지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이용한 해양 레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들었으며 마리나와 함께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영종에 있는 왕산 해수욕장에서 요트도 타고 정박도 할 수 있지만 네덜란드와 우리의 현실은 많이 다른 편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요트 타는 인구가 늘어난다면 참고해볼만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마리나 시설(Holland Sport Boat Center) & 요트 정박장

- 네덜란드에는 옛날 풍차집들이 많이 있었고 동화 속의 집처럼 예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네덜란드에서 풍차집에 살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고 이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풍차집에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암스테르담 사람들은 말이 많은 편이었고, 문화를 잘 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암스텔담의 도시풍경에서 도로에 달리는 차들은 작은 차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항구 도시인지라 집 근처에 운하가 있어 배를 타고 다닐 수 있었고 모여 있는 집들은 동화에서나 본 듯한 풍경을 하고 있었다.

○ 네덜란드는 장사를 하면서 수입을 얻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50%정도 내도록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들었다. 수입의 50%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 불평이 많지 않고 그들이 가진 직업에 대해 직업정신이 투철한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

○ 네덜란드의 두 번째 도시인 로테르담으로 향했다. 언덕이 없는 평지의 도시이기에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와 트램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자전거 거치대를 보면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낮은 공원 담장에 그물처럼 두꺼운 철사 모양으로 만든 철구조물에 자전거를 묶어놓고 거치대도 단층이



아닌 2층으로 만들어놓으니 간단하고 많은 자전거를 세울 수 있어 매우 편리해보였다. 거리에는 버스보다는 트램이 많이 다니고 있었고, 이는 자연친화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를 운치 있게 보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트램이 다니는 도시의 모습은 매우 평화로워 보였다.



- 로테르담에 도착해서는 KCAP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사무소)  
기관 방문을하였다.



- KCAP는 110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많이 기획·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일하는 사람들의 남녀 비율이 비슷하며 22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그 중 한국인도 3명 포함되어 있었다. 주로 건축·도시 조경의 분야를 다루는 통합적인 대규모·소규모 일을 모두 진행하고 있으며, 주로 유럽에서 진행되는 일을 많이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사업으로는 종묘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맡고 있다. 네덜란드는 바다의 수면보다 지반이 낮은 국가로 수세기동안 바다를 간척하며 땅을 만들어 가고, 통합적인 협업에 익숙하며 토목 설계를 할 때 땅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까지 생각하며 설계한다고 한다. KCAP에서는 네덜란드 및 유럽 항만 재생을 많이 하여 그에 대한 재생 사례에 대해 청취하였고, 인천 내항 재개발 컨셉 디자인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그 후 현지의 도시 재생사례 지역에 대해 견학을 하였다.

- 마켓홀 라우런스 지역은 철도 부지를 지하화하여 도시 재생을 하였고, 시민 참여로 시민들이 보행 육교를 놓기 위해 모금하였으며 모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나무 푯말로 작성하여 다리의 벽면에 걸어놓았다.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주축이 되는 모범 사례였다.



보행육교 모금자 명단(우측)

- 또한 현재 쓰이지 않는 철도를 이용하여 그 위에 빌딩을 세운 것을 보며 작은 땅을 잘 활용했다는 생각과 건축 기술의 뛰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로테르담의 건축물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건축 디자인들로 건축물들 모두가 색다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건축물만으로도 충분한 볼거리가 되었다. 특히 개성 넘치는 건물들이 많은 로테르담 항구 주변 큐브하우스는 정말 장관이었으며, 델프스 카번 항구도시의 풍차 집들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오래된 건물들이었지만 너무 잘 관리되어 있었다.
- 이렇게 네덜란드를 뒤로하고 독일 프랑크르트로 향했다. 겨울비가 내리는 독일의 첫인상은 매우 한적해보였으며 조용한 느낌이었다. 우리는 독일 프랑크프르트에 도착하여 사회복지기관을 공식 일정으로 방문했다. 이 곳은 민간이 운영하는 곳으로 적십자 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며 정부에서는 시설 운영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다.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고있으며, 시설에 머무르는 비용은 식사비, 시설 이용비 등 포함하여 1,980유로정도이며 50%이상은 지원 받는 곳이 있다고 한다. 독일의 요양시설도 우리나라의 요양시설 모습과 매우 흡사해보였다. 이후 하이델베르그로 이동하여 중세 범죄박물관 견학을 하였다.



- 이와같이 네덜란드와 독일의 선진지 비교 시찰을 마무리하였다. 네덜란드 도시들의 다양한 모습의 건축물들을 보며 우리나라도 건축물을 설계할 때 획일적이지 않고 사람들이 와서 볼만한 건축물들을 지어 관광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면 한다.

## VII

## 시찰결과

- 유럽 대표의 항만을 보유하고 도시재생에 성공한 네덜란드와 높은 사회복지, 문화관광 시스템을 갖춘 독일을 방문함으로써 중구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항만 재개발과 도시재생,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고 보존·개선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 방문국들의 잘 갖춰진 사회복지 시스템과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구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 특이사항

####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 예. ☒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 예. ☒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소속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소속기관에 제출하고 소속기관에 구성된 선물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